

교복 사라 갔다가 5시간 대기…특정 업체 ‘몰아주기’ 논란

광산구 보문·수완고 등 4곳, 단일 업체 지정에 1100명 ‘우르르’
3억대 물량 독점에 학부모들 “특혜 의혹”…개학 전 수령 불투명

광주시 광산구 지역 4개 고등학교가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교복과 체육복 구매처를 특정 업체 한 곳으로만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백 명의 학생과 학부모가 비좁은 매장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헛걸음을 반복하는 등 ‘교복 대란’이 빚어진 것이다.

특히 3억 원이 넘는 대규모 물량이 한 업체에 집중된 배경을 두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서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25일 광주지역 학부모들에 따르면 보문고·수완고·명진고·진흥고 등 4개 고등학교는 최근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2026학년도 신입생 교복은 광산구 신가동 소재 A업체, 체육복은 서구 농성동 B업체에서 공동구매 방식으로 일괄 구입하라고 안내했다.

해당 4개교의 신입생 규모는 약 1100명으로, 1인당 교복·체육복 구매 비용(33만 2500여 원)을

단순 합산해도 총사업비가 3억 원을 훌쩍 넘는 규모다.

문제는 대규모 인원이 불과 나흘(22~2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특정 업체 한 곳으로 몰리면서 발생했다. 교복 매장이 위치한 곳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외진 곳인 데다, 25평(약 82㎡) 남짓한 협소한 공간에 오후 1시 무렵 이미 200여 명의 인파가 몰려 발 디딜 틈조차 없는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현장을 찾은 학부모들은 “번호표도 없이 5시간을 기다렸지만, 결국 치수도 재지 못하고 돌아왔다”, “사람이 너무 많아 줄을 서는 것조차 불가능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더욱이 남녀 학생들이 뒤엉켜 비좁은 탈의실을 오가는 민망한 상황이 반복되자 학부모들의 고성이가 오는 등 항의가 빚발쳤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학교 측이 요구한 ‘개

학식 교복 착용 등교’ 조건을 맞추려면 제작 기간 40일을 확보해야 해 일정이 촉박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학교와 업체의 일방적인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학부모 C(45·여·수완동)씨는 “맞춤 정장도 아니고 기성품을 체형에 맞춰 입는 방식인데 굳이 한 곳만 지정해 대란을 자초했는지 의문”이라며 “중학교처럼 업체가 학교를 방문해 일괄 측정하거나, 최소한 학교별로 방문 일자를 분산시키는 융통성조차 없었다”고 성토했다.

학교 측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절차를 거쳐 공동구매 업체를 선정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학부모들은 거액의 물량을 한 곳에 몰아준 구조 자체에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학부모 D(52·남·여룡동)씨는 “수억 원대 이권이 걸린 사업을 특정 업체 한 곳이 독점하도록 한 것은 단순한 졸속 행정을 넘어 비위 행위나 유착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 역시 “개별 학교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물량 쓸림으로 인한 현장의 혼란이 명백한 상황에서 광주시교육청이 관리·감독 책



22일 오후 1시께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A 교복업체 매장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복사이즈를 측정하기 위해 번호표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5시간 이상 대기하고 있다.

임을 방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치수 측정 첫날인 지난 22일, 해당 매장을 방문한 학생 중 불과 50여 명만이 측정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와 같은 혼잡이 지속될 경

우, 상당수 신입생이 개학일인 3월 초까지 교복을 수령하지 못해 사복을 입고 등교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글·사진·최승철 기자 srchoi@kwangju.co.kr

복합쇼핑몰 우려와 달리…인근 상권 매출 ‘동반 상승’

‘복합쇼핑몰 입점’ 대시민 공개토론회

연간 71만명 골목 상권 유입

음식점·카페 등 매출 증가

화장품·의류 등 일부 업종 감소

광주시가 추진 중인 복합쇼핑몰 유치가 지역 소상공인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대규모 집객 효과에 힘입어 인근 상권의 매출을 동반 상승시킨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다만 화장품이나 의류 등 복합쇼핑몰 주력 판매 품목과 겹치는 일부 업종은 매출 하락이 예견돼 이에 대한 정교한 상생 대책이 요구된다.

광주시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23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복합쇼핑몰 입점 관련 대시민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권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조준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맡았으며, 대전과 대구 등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주 지역의 미래 변화를 시뮬레이션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더현대 광주’가 들어설 경우 입점 후 3년 평균 광주시 전체 음식점 매출은 2.91% 증가하고, 슈퍼마켓(1.59%), 커피·제과(2.21%) 업종도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대형 쇼핑몰이 외부 고객을 끌어들이는 ‘앵커 시설’ 역할을 하면서, 방문객들이 쇼핑몰뿐만 아니라 인근 상권을 고차 이용하는 낙수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분석팀이 유동 인구 데이터를 토대로 추산한 결과, 더현대 광주 반경 3km 이내의 음식점과 카페를 이용하는 고객 중 약 23.84%가 쇼핑몰과 골목상권을 동시에 이용할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시 서구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지난 23일 열린 복합쇼핑몰 출점 관련 대시민 공개토론회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인원수로 환산하면 연간 약 71만5000명에 달하는 수치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역시 광주시 전체 음식점 매출을 4.22%, 커피·제과 매출을 5.53% 끌어올리는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쇼핑몰의 성격에 따라 범람이 갈리는 업종도 확인됐다.

백화점형인 더현대 광주가 들어서면 브랜드 경쟁이 치열한 화장품 업종 매출이 3.43%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으며, 쇼핑 테마파크인 스타필드의 경우 의류·패션·잡화 업종 매출이 1.46%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토론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상생 방안이 제시됐다.

이성호 국립한밭대 교수는 복합쇼핑몰 3사의 총

투자 규모가 5조4403억원에 달하고 시설 투자 단계에서만 5만7123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광주골목포인트” 도입을 제안했다.

복합쇼핑몰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지역 골목상권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연동해 낙수효과를 제도적으로 강제하지는 취지다.

이에 대해 순회정 광주소비자단체협의회장은 소비자의 편익과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설계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상권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는 인센티브 방식이 되어야지, 사용처를 강제로 제한하는 방식은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이 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지소세 29조 ‘금고지기’ …연 100억 수익

행안부 ‘납입관리자’ 선정

단기 운용 수익 재정 솜통

광주시가 내년 2월부터 1년간 전국 지자체에 배분되는 29조원 규모의 지방소비세를 총괄 관리하는 ‘금고지기’를 맡게 돼, 단기 자금 운용으로만 100억원이 넘는 이자 수익을 올리게 됐다.

경기 침체로 인한 세수 감소로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행정력만으로 확보한 이 같은 부가 수익은 지역 살림에 ‘가뭄의 단비’가 될 전망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2026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광주시가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월 1일부터 1년간 전국에서 걷히는 지방소비세 약 29조원을 관리·배분하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소비세는 국제인 부가가치세의 일부

(25.3%)를 지방세로 전환해 각 지자체의 재정을 돕는 재원이다. 지난 2010년 지방 재정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납입관리자로 선정된 광주시는 매월 20일 전국 세무서장과 세관장이 거둬들인 부가가치세의 25.3%를 납입 받아, 정해진 안분 기준에 따라 전국의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에 나눠주는 역할을 맡는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는 분기별로 세금을 배분하기 전까지 자금을 예치·관리하게 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이 상당하다. 시는 금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1년간 약 100억여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별도의 예산 투입이나 사업 리스크 없이 행정 관리 권한만으로 연간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체 수입을 올리게 된 셈이다. 시는 이 재원을 민생 경제 회복과 현안 사업 추진 등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전액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봄을 품은 겨울…광주시립수목원 특별전

3월1일까지 식물표본 전시

광주시 제1호 공립수목원으로 새롭게 발돋움한 광주시립수목원이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봄의 생명력을 느낄 수 있는 이색적인 식물 표본 전시회를 마련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시 수목원·정원사업소는 오는 3월 1일까지 광주시립수목원 방문자센터에서 ‘봄을 품은 투명한 겨울’을 주제로 특별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시립수목원이 최근 광주시 최초로 전국 38번째 공립수목원으로 정식 등록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내 유일의 난대 수목원인 전남도 완도수목원과 손을 잡고 협력 전시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의

미가 깊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전시장은 완도수목원 연구진이 직접 채집하고 제작한 식물 표본들로 채워졌다. 산딸나무와 같은 수목류 20점과 꽃향유 등 초화류 16점을 포함해 총 36점의 희귀 표본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전시는 매주 월요일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와 연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도 풍성하다. 시립수목원은 오는 2월 13일까지 6세에서 10세 사이의 자녀를 둔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해 야생동물 흔적 찾기, 나뉜 다육이 정원 꾸미기, 로제트 식물 관찰, 겨울나무 이야기 등 4가지 특별 체험 강좌를 운영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 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4개>

*QR코드 : 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합니다.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연립주택/다세대/빌라]					
2025타경 451	3	목포시 백년대로297번길17-1, 비동 6층 604호 [상동,하당로데오타운] 34.285㎡	다세대	39,000,000 39,000,000	
2025타경 51224	1	목포시 연산로124번길16, 3층 301호 [연산동, 연립주택 제우빌라드] 76.66㎡	연립주택	71,000,000 71,000,000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25타경 451	1	목포시 백년대로297번길17-1, 비동 5층 502호 [상동,하당로데오타운] 39.32㎡	오피스텔	45,000,000 45,000,000	
	2	목포시 백년대로297번길17-1, 비동 5층 503호 [상동,하당로데오타운] 39.32㎡	오피스텔	45,000,000 45,000,000	

[대지/임야/전답]

2025타경 445	1	함평군 함평읍 대덕리 666-36 [현황:목전] 1581㎡ [원상복구계획출사노취발급]	전	22,134,000 22,134,000	행지,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25타경 51271	1	신안군 암태면을 가흥리 산144 5554㎡ 동소 산145 29653㎡ [수목매각포함,제시외건물과비닐하우스2동매각제외]	임야	796,146,000 796,146,000	일괄매각,목록2분지상으로제시외건물,ㄴ매각포함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2025타경 51242	1	목포시 호남동 8-68 36㎡ 목포시 상일동28번길 17 단층 18.84㎡ 제시외 화장실5㎡ [물건번호1:목록2공부상면적18.84㎡,스레이트지붕,현황상면적48.0㎡,스레이트위강판방]	대 단독주택	19,508,500 19,508,500	일괄매각,목록1및인정필지8-26.27지상으로제시외건물,ㄴ매각포함
--------------	---	---	-----------	--------------------------	-------------------------------------

사건번호	매각물건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물건 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기타]

2025타경 51215	1	함평군 월야면 용정리 145-4 660㎡ [지상장전 [미신고시설]매각포함]	목장용지	1,018,265,400 1,018,265,400	일괄매각,목록8,9목작물가,나에대해부주동형정목지선단직원으로부터해당목작물가,나는해반주소타지번[월야면용정리산42]언로동채,목록6지번만확인시제외및은전임세대없다고확인,목록1,5현황임야및일부도로
		동소 145-10 145㎡ [제시외의 관정1식]	대		
		동소 145-13 188㎡	도로		
		동소 145-11 325㎡ [현황임야및일부도로]	창고용지		
		동소 145-5 78㎡	목장용지		
		동소 145-14 3572㎡	대		
		동소 145-12 136㎡	도로		
		함평군 월야면 일재로 973-33 1동호 1.2층각 414㎡	근린시설		
		동소 973-31 [1동] 지1층32㎡ [물건번호1:목록9현황1층]	창고시설		

[아파트]

2025타경 51293	1	목포시 산양로40, 102동 15층 1502호 [대양동, 근화희망타운아파트] 59.79㎡	아파트	66,000,000 66,000,000	미납관리비있음
--------------	---	---	-----	--------------------------	---------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해당 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발청일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 수 있음.
-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로 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격을 공유자 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 매각기일 : 2026. 2. 9.[월] 10:00
- 매각결정기일 : 2026. 2. 19.[목] 16:00
- 매각장소 : 목포지원 경매법원
- 입찰방법에 비추어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건 발행의 자기인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 넣는다.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백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한다.
-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자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한다.
-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한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참여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 소유권 이전 및 인도
 -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적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적세영수필합서 및 등적세영수필증지원을 첨부하고, 국민주택재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준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지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주의 사항
 -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바빠보나 먼저 주된권점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거나, 사업자등에게 임대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감정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미납소 시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호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인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물건은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신용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용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법원에 비치되거나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나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만 반환됩니다.
- 매각결과 공고의 요지는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경매공고 → 매각결과 선택]

※ 대한민국 법원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특히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잔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26. 1. 2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정춘호